

우리학교 럭비부 3전승으로 우승

강린희 기자 linhee0710@khu.ac.kr

우리학교 럭비부가 2021년 전국 춘계럭비리그에서 21년 만에 우승을 거뒀다.

럭비부는 지난 25일 고려대학교 송추운동장에서 열린 연세대학교와의 결승 경기에서 32 대 27로 승리했다. 앞서 진행된 단국대학교(41 대 0 승), 고려대학교(34 대 33 승)와의 경기에 이은 3전승의 영광을 누린 것이다. 주장 최성덕(스포

츠지도학 2018) 선수와 안덕균 감독은 각각 최우수선수상(MVP)과 최우수 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우리학교는 결승 전반 6분에 장현구(스포츠지도학 2020)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3점을 선취했다. 하지만 연세대 박우빈 선수가 상대편의 인골 안에 공을 찌는 트라이에 성공했고, 공을 찌는 지점에서 킥을 차는 컨버전킥으로 2점을 더 득점했다. 이후 장 선수의 컨버전킥, 연세대 고승재 선수의 페널티킥, 연세대 양



최 선수는 "이번 대회에 수사불패(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지지는 않겠다)의 마음으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럭비부 박용돈 코치 제공)

준철 선수의 트라이가 있었고 우리 학교 이휘원(스포츠지도학 2019) 선수가 트라이로 응수했으나 11 대 15로 뒤진 채 전반을 마무리했다.

후반전에서 연세대 김명수 선수에게 트라이를 내준 후 반격에 나선

우리학교는 이재환(스포츠지도학 2018) 선수의 트라이와 장현구 선수의 컨버전킥으로 7점을 만회했다.

이어 이재환 선수가 다시 트라이에 성공했고 장 선수가 컨버전킥을 보냈다. 이후 연세대 윤영민의 트라이

와 컨버전킥으로 연세대의 재역전을 허용했으나 우리학교 이재환 선수와 장현구 선수가 추가 득점에 성공해 5점 차 승리를 거뒀다.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최성덕 선수는 "감독님과 코치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분들이 팀을 잘 이끌어 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부모님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어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열심히 해준 동기와 후배들에게 너무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용돈 코치는 "포기하지만 말고 최선을 다하자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기쁘다"며 열심히 경기에 임한 선수들에게 애정을 보였다.

▶1면 '국제캠 총학'에서 이어짐

불만 여론이 일자 국제캠 총학은 3차례에 걸쳐 공식 SNS와 전완주 총학생회장의 개인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총학은 사과문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며 불거진 많은 문제들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믿고 지지해주신 학우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사과문에는 해당 행사의 진행 과정,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 제기된 논란에 대한 해명과 학생 피드백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포함됐다.

이후 13일 국제캠 학생 412명이 총학생회장단 탄핵 논의를 위한 중운위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중운위는 총학생회칙 56조 2항에 근거해 21일 임시회의를 열어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을 의결했다. 탄핵안은 6단위의 찬성(공대, 외대, 전정, 응용, 소용, 국제), 3단위의 반대(체대, 예대, 총학), 1단위의 기권(생대)으로 찬성 1단위가 부족해 부결됐다. 탄핵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학생 커뮤니티에는 '탄핵안 반대'에 대한 논거가 부족하다, '단과대 회장들이 학생 의견을 수렴했는지 의문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강주은(시각디자인학 2017) 예술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은 입장문을 내고 탄핵에 반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강 회장은 "탄핵이라는 것은 사태를 일으킨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오히려 탄핵을 하는 것이 총학이 이 사태에 대한 해결을 마무리 짓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학이 책임지고 등록금 반환을 해결하고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이 진행된다면 학교 측과의 협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다은(체육학 2018) 체육대학 학생회장도 입장문을 내고 "총학이 내세운 공약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불명확한 자료 제시, 미흡한 홍보, 소통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앞으로 진행될 행사 및 사업 등에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두 학생회장의 해명에도 학생들의 비판은 이어졌다. 국제캠 학생 A씨는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으면서 총학생회장단의 자리를 유지하려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은 책임 회피가 아닌 책임을 묻는 수단"이라며 강 회장의 입장문을 반박했다. 다른 학생 B씨는 "총학이 공약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탄핵은 적절치 않다는 전 회장의 논리대로라면 어느 공동체에서건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표자를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강 회장이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탄핵에 반대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정환 부총학생회장이 2018년에 예대 학생회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강 회장이 해당 학생회에서 재정처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우리신문은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을 듣고자 강 회장과 전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두 회장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일부 국제캠 학생들은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발의를 안건으로 한 확대운영위원회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세균, 먼지, 진드기 없이 건강하게~

안심하고 덮는 뽀송뽀송한 이불!



알레르기 질환의 주요 원인은 침구류에 주로 서식하는 **집먼지 진드기** 질병관리본부 [어린이 알레르기질환 조사 결과]

알레르기 비염 43.6%

아토피 20.6%

집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반응 32.4%



크린토피아 이불세탁 서비스



대용량 세탁기 건조기

부피 큰 이불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용량 세탁기와 건조기



55°C 열풍건조

55°C 열풍건조로 이불 속 집먼지 진드기 박멸!



텀블링 건조

텀블링 건조로 이불을 팍팍 털어 집먼지 진드기 시체와 먼지를 분리



강력한 흡입으로 제거

건조기의 강력한 흡입기능으로 이불질을 완전히 제거